

확률칼럼 작성하기

2학년 6반 6번 이름: 전서범

도서명 Newton 확률의 세계

지은이 알론 뉴턴프레스

선정주제 도박에서 돈을 내는 법

내용 재구성

시기를 당했다는게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재 안전 사피에요.

네, 제가 추민클 당리고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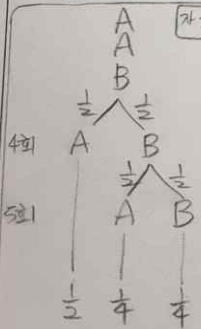
저는 라센슬레도 도박을 했어요. 근데 제마 감자기 내물들이 생겨서 그만잡자고 했어요. 근데도 뒤, 자바 2번하고 전 1번밖에 못이겼어요. 그래서 돈의 폭을 주겠다고 했는데 글세 자바 뭐하는지 않아요?

뒤, 물레웠나요?

왜 추민클 받으려고 하는거예요?

자 화요. 제마 아렸을때 A 저 마자가 아렸을때 B라고 해요.

1원 A양이 추민클 받는데 맞네요



전 4회, 5회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있었고 저 마자는 5회까지는 가만 겨우 가능성이 살짝요.

도박에서 이길 확률은 늘어나가 제마 이 도박에서 이길 확률은 $\frac{1}{2} + \frac{1}{4} = \frac{3}{4}$ 이고 저 마자가 도박에서 이길 확률은 $\frac{1}{4}$ 에 안도요.

A가 될 확률: $\frac{1}{2} + \frac{1}{4} = \frac{3}{4}$

B가 될 확률: $\frac{1}{4}$

제마 제마 돈의 추민클 받아요!

<The End!>

※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책에서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되, 수업시간에 배운 교과 내용과 관련지어 해석하거나 실생활과 결부시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잡지기고양식, 광고, 퀴즈, 가상 인터뷰 등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확률칼럼 작성하기

2학년 10반 23번 이름: 여수빈

도서명 통계의 미학

지은이 최제호

선정주제 현대 통계학의 새 지평을 연 피어슨과의 인터뷰

내용 재구성

기자

네, 양은 현대 통계학의 새 지평을 연 영국의 수학자 피어슨 박사라 이야기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박사님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어떻게 통계학을 연구하게 되었나요?

기자

그럼, 통계학에서의 박사님의 영감을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기자

여시 명성만큼 통계학에 많은 무대하한 반지회를 남겼군요. 특히 박사님의 명성에 "통계학의 과학의 방법이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하신걸까요?

기자

굉장한, 박사님의 끝없는 연구 덕분에 저와는 인생살이에서도 통계를 성공하며 얻어는 삶을 살고있습니다. 이생으로 아저기를 하하게 됩니다. 피어슨 박사님, 모든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마 신생애에도 유용하게 쓰이는 통계학은 19세기~20세기 초 영국에서 바로는 큰 학문으로 자리잡게 되었 습니다. 이러한로 하면 노파지만 저마 그 역사가 큰 기여를 하였죠.

저는 런던대학의 연구원 이었 습니다. 작은 당시 우생학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우생학을 어떻게 하면 학칙인 사상으로 설명할수있을까가 생각들하여 통계학을 연구하기 시작했 습니다.

우선 저는 2교인 런던대학교에 처음으로 통계학자를 개성출 사람했 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쓰이는 다양한 통계의 응용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종속성도 배운 '표본평균'을 만들었 습니다. 또, 다양한 그래프나 표 등을 알기쉽게 정리 하였죠.

하하, 네 그말은 제가 1892년에 이 퍼대해 '과학의 방법'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그만큼 통계학은 과학, 수학 분야 여러 것들 분야에서 중요한 뜻입니다. 한미는 제가 저의 '과학의 방법'의 내용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 습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책에서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되, 수업시간에 배운 교과 내용과 관련지어 해석하거나 실생활과 결부시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잡지기고양식, 광고, 퀴즈, 가상 인터뷰 등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확률칼럼 작성하기

2 학년 10 반 4 번 이름: 문지수

도서명 통계의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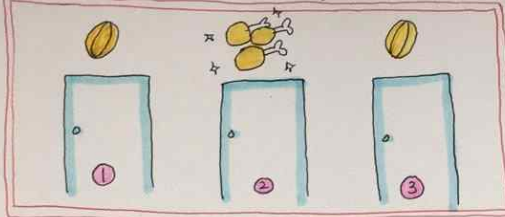
지은이

최제호

선정주제 조건부 확률과 몬티홀 문제

내용 재구성

나: 회장아 내가 문제 하나를 낼게. 한번 바르면 어떻게 대답해봐.



①, ②, ③ 위에는 각각 너가 좋아하는 치킨 혹은 참치가 있어. 너가 하나의 문을 고르면 내가 그 뒤에 있는 것을 골라. 난 항상 알. 난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 않아. 너가 우선 고를 버튼을 말해봐.

회장: 난 ①번!

나: 나는 확 ③번을 얻어주었어. 그러는 너에게 ②으로 바꿀까? 아니면 바꿀까?

회장: 난 안바꿀래. 바꿨는데 ①이 있으면 아깝잖아.

나: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너는 바꿀 것이 이익이야. 왜냐하면, 우선 ①이 틀린 치킨이 있을 확률은 $\frac{1}{3}$ 이지. 나머지 둘은 ②, ③이 있잖아. 그러니 내가 그 둘 중 ③을 얻고 ②이 틀린 선택지를 주면서 확률은 $\frac{2}{3}$ 로 올라가. 즉, ①이 치킨이 있을 확률은 $\frac{1}{3}$ 로 여전히 ②이 있을 확률이 $\frac{2}{3}$ 인 셈이지.

회장: 아~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수학 용어로 설명해줄 수 있겠어?

나: 그렇! 우선 이 문제의 키워드는 ①이 치킨이 있을 확률이 $\frac{1}{3}$ 이네.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수학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조건부 확률** 만할 수 있어. ~~사건~~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P(B|A)$ 라고 해.

이것은 문제에 적용해볼게. ①이 치킨이 있을 확률: A, 내가 ③을 얻은 확률: B.

$P(A|B)$ 는 ①이 치킨이 있을 확률이지. $P(A|B) = \frac{P(B|A) \cdot P(A)}{P(B)}$ 야. 내가 ③을 얻은 확률은 $\frac{1}{3}$.

나 ①이 치킨이 있을 확률이 $\frac{1}{3}$ 이니까. $\frac{1}{3} \times \frac{1}{3} = \frac{1}{9}$ 이라는 확률이 4가지래. 따라서 내가 바꿀까? 하면 ①이 치킨이 있을 확률은 $\frac{1}{3}$ 인 거지.

※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책에서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되, 수업시간에 배운 교과 내용과 관련지어 해석하거나 실생활과 결부시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잡지기고양식, 광고, 퀴즈, 가상 인터뷰 등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회장: 오! 너 덕분에 재밌는 문제도 알고 수학을 배우는 게 과워!

확률칼럼 작성하기

2 학년 10 반 3 번 이름: 김상은

도서명

박테리아가 만드는 제 4차 산업혁명

지은이

김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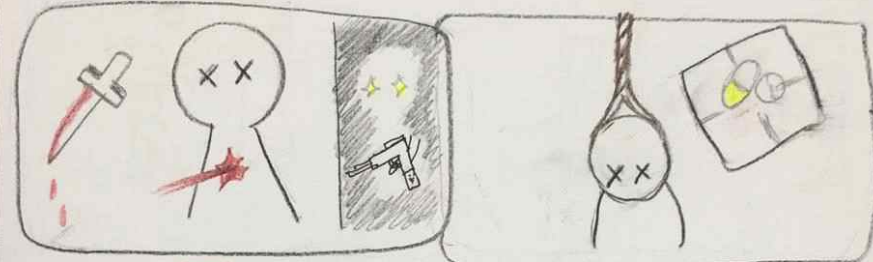
선정주제

유용성의 오류

유용성의 오류

내용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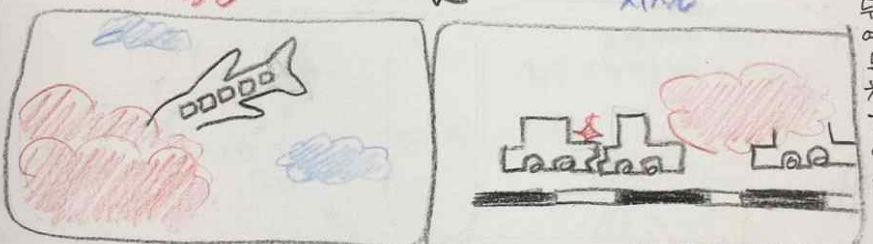
유용성의 오류!



사건

VS

자살



비행기 사고

VS

차 사고

여러분은 이 두가지 사건의 확률 중 어느 것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가 더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자살과 차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유용성의 오류인데, 유용성의 오류란 좀 더 강하게 내게 바쳐 주는 것이 자살만큼 다가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사고와 자살은 두 가지 예시에서 더 정확하게 다뤄지는 비행기 사고가 차 사고보다 규모가 크

※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책에서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되, 수업시간에 배운 교과 내용과 관련지어 해석하거나 실생활과 결부시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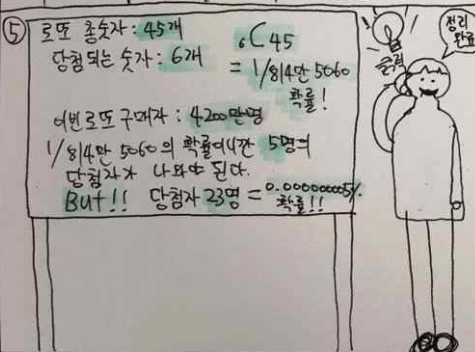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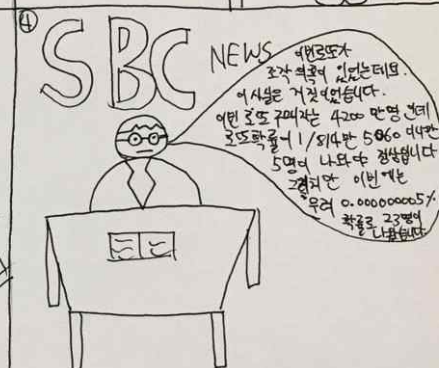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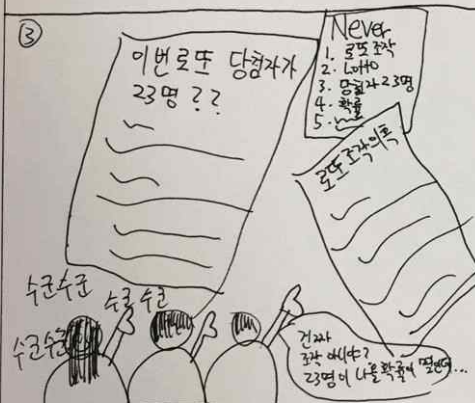
※ 잡지기고양식, 광고, 퀴즈, 가상 인터뷰 등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있어나 더 강하게 바쳐 실제로는 달리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로는 유명한 '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2학년 9반 15번 이름: 김전욱

도서명	통계의 미학	지은이	최지후
선정주제	실생활에 쓰이는 확률		

내용 재구성



※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책에서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되, 수업시간에 배운 교과 내용과 관련지어 해석하거나
실생활과 결부시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잡지기고양식, 광고, 퀴즈, 가상 인터뷰 등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2학년 7반 22번 이름: 김현우

도서명	우연의 과학	지은이	다케우치 케이
선정주제	생명보통 (하위주제: 생명보통을 태어난 거지, 계승보통, 계보로 계속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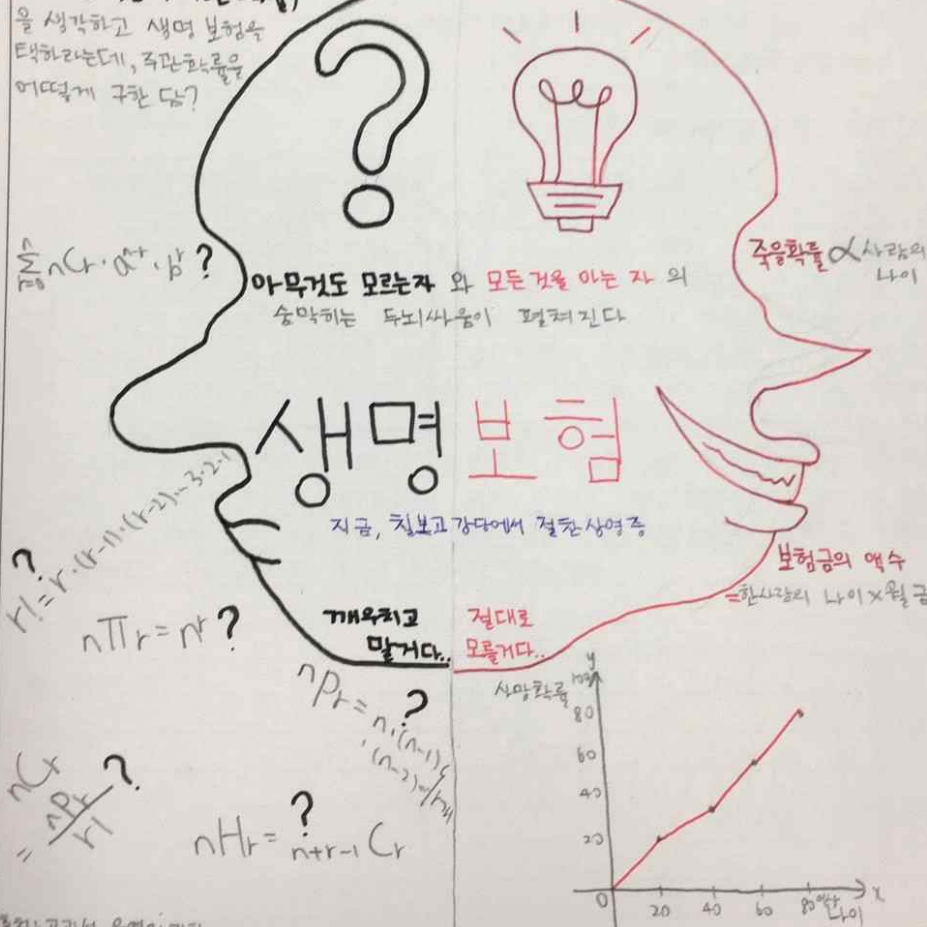
내용 재구성

(내가 죽을 때 가족이 받는 돈)

(보험금의 액수) \times (죽을 확률) 만 계산하면
되니, 이윤을 계산하기 정말 쉬움!

X (방 작음의 주관 화음)

을 생각하고 생명 보험을
택하리는데, 주관하는 글을
어떻게 구한 다?



북지 & 남지, 옥연지 & 남지

※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책에서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되, 수업시간에 배운 교과 내용과 관련지어 해석하거나
실생활과 결부시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잡지기고양식, 광고, 퀴즈, 가상 인터뷰 등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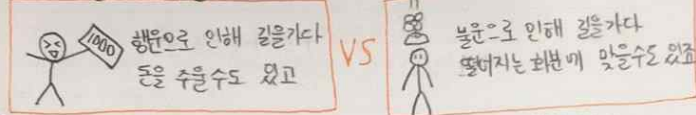
확률칼럼 작성하기

2학년 8반 11번 이름: 정지민

도서명	우연의 과학	지은이	다케우치 케이
선정주제	행운과 불운		

내용 재구성

행운과 불운! 둘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일어난다는 점에서 같고, 행운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 불운은 우연히 일어나는 안좋은 일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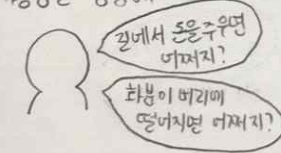
Q. 만약 떨어지는 화분을 맞았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까요?

A.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지만, 사고원인의 일부를 만든 사람이 사건의 일부를 책임지는 것이 맞죠. 즉, 화분을 거기에 놔둔 사람이나, 우연히 거기 서있었던 사람 둘다 책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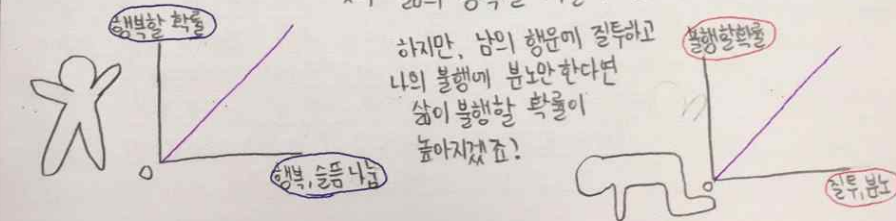
Q. 그렇다면 불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수는 없을까요?

A. 불운에서 불어오는 우연을 피할수는 없어요. 하지만 불운을 다음으로써 거기서로는 불행의 크기는 줄일 수 있습니다!

우연을 헤아리는 것은 사람의 상상력에 의존합니다. 즉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비교하는 것이고, 현실에 없는 사건에 대해 이래저래 생각하는 것이죠.



상상적으로 인해 '운' 이든 '불운' 이든 거기서로는 행운의 크기는 키우고 불행의 크기는 가볍게 할 수 있지만, 행운이나 불행이나 완전히 우연이라는 점에서 부터 부조리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운이 오면 작은것고 기뻐하고, 불행이 닥치면 '그냥 운이 나쁜데' 라고 넘겨버리는 것이 삶의 행복한 확률이 높아집니다.



※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책에서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되, 수업시간에 배운 교과 내용과 관련지어 해석하거나 실생활과 결부시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잡지기고양식, 광고, 퀴즈, 가상 인터뷰 등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확률칼럼 작성하기

2학년 10반 5번 이름: 양지윤

도서명	발해빛은 통계학	지은이	칼스 칼슨
선정주제	여론조사		

내용 재구성

여론조사, 믿을만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친근함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통계적 추론의 일부라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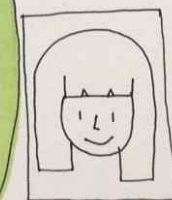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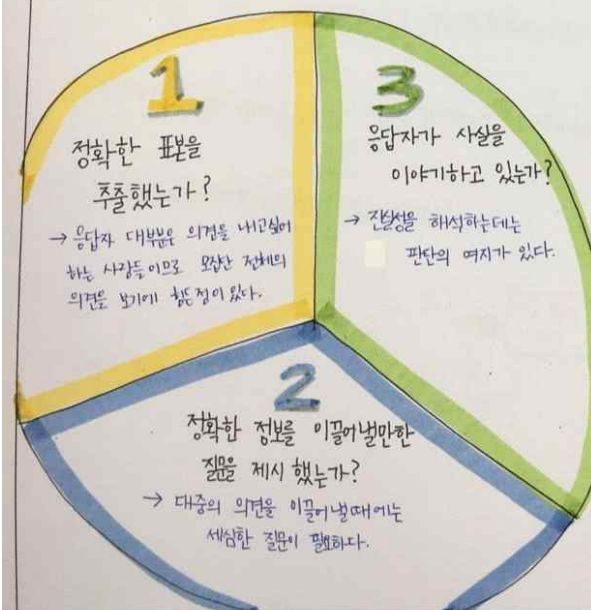
이 사실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또는 설문조사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이 밝힌 의견을 관하여 모집단의 의견을 추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 보게 되는 여론조사 또는 설문조사가 믿을만한지, 아닌지 3개의 질문으로 확인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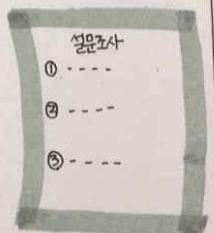


* 모집단 중 일부를 표본이라 한다.



- 양지윤 기자 -

0000 @ naver.com



이 3개의 질문으로 많은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믿을만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똑똑한 사람답게 진실성 있는 지식만 기억해 두자.

※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책에서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되, 수업시간에 배운 교과 내용과 관련지어 해석하거나 실생활과 결부시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잡지기고양식, 광고, 퀴즈, 가상 인터뷰 등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